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변액연금 판매실적, 회사마다 엇갈려

- 미국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(Morningstar)는 변액연금 판매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변액연금 신규판매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몇몇 회사들의 변액연금 매출은 늘고 있으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.
 - 2009년 상반기 변액연금 신규판매는 전체적으로 24% 감소했으나 회사별로 보면 피닉스(Phoenix)사가 84%의 감소를 보인 반면 오하이오 내셔널(Ohio National)사는 무려 101%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는 등 회사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.
 - 독립설계사 위주로 영업하는 푸르덴셜(Prudential)의 경우에는 2/4분기에만 34억 달러의 연금보험 신규보험판매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3%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/4분기에도 35%의 증가를 기록한 바 있음.
- 변액연금 신규매출이 증가한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, 금융시장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내용을 완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 - 푸르덴셜의 경우 연금펀드의 수익률 하락 시 자산을 자동적으로 재배분하도록 설계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최소보장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고수함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 줌.
 - 반면 악사(AXA)의 경우에는 변액연금 상품의 최소수익률보장이율(roll-up rate)을 6%에서 5%로 낮추면서 2/4분기에만 10억 달러 가량의 신규보험료 감소를 경험한 바 있음.
- 푸르덴셜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변액연금의 최소보장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켰고 최근 주식시장 반등 또한 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을 확대했다고 지적함.
 - 그는 변액연금 신규판매가 큰 폭의 증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감소세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, 변액연금 판매가 최고조였던 2007년의 1,55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2009년 신규보험료는 1,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.

(Insurance News Net, 9/25)